



행복한 성당, 하와이 한인성당

# 하와이 한인 천주교회

St. Andrew Kim Taegon Oratory

- 주임신부 : 권지훈(베드로)
- 사목회장 : 김성연(야고보)
- 사제관 : (808) 422-1040
- 사무실 : (808) 422-1010

- 성당 주소 : 511 Main St, Honolulu, HI 96818 ◦ 성당 이메일 : [honoluluukcc@gmail.com](mailto:honoluluukcc@gmail.com)
- 홈페이지: <https://standrewkimhawaii.org>

제2281호

2025년 12월 28일(가해)

미사 안내	평일	화, 수, 금 : 오전 10:30 목 : 오후 7:00 (성체 강복: 매달 첫 번째 목요일 7시 미사 중)	주일	토 : 오후 4:00 일 : 오전 06:30, 10:30 오후 4:00 (St. Peter & Paul 성당, 매월 셋째 주 마우이 공동체 오후 2:30)
연령회	병자성사, 봉성체를 희망하시거나 임종 환자 또는 망자 발생시에는 신속히 연령회로 연락 바랍니다. – 연령회장: 김미아 헬레나 (808) 291-7811			



## 오늘의 미사

##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 1독서 : 집회서 3,2-6.12-14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화답송 : 행복하여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분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 2독서 : 콜로새서 3,12-21	▶ 복음 : 마태 2,13-15.19-23

성가

▶ 입당: 114

▶ 봉헌: 219, 220

▶ 성체: 152

▶ 파견: 102

- ① 1월 1일 첫 목요일은 성체 강복 없습니다.
- ② 1월 18일(일)은 Peter & Paul 성당 파견 미사가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문의 바랍니다.
- ③ 1월 18일(일)은 마우이 공동체 미사(오후 2:30)가 있습니다.  
(St. Anthony Church – 1627 Mill St. Wailuku, HI 96793)



사목공지

- 1월 봉성체는 1월 15일(목, 오전) 서쪽 지역, 1월 16일(금, 오후)  
동쪽 지역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 ⑤ 매월 셋째 주 ‘화해와 일치 주간’ (1월 18일~24일)
- ⑥ 매월 넷째 주 1월 25일(일) ‘한끼 나눔’
- ⑦ 미사 참석시 명찰 착용을 부탁드립니다.
- ⑧ 1월 1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 – 오전 10시 30분 (현금)



## \* 교육분과 공지

사목위원회

### 교리교육

- 12월 28일 & 1월 4일: 휴강



구역 및 단체

### ① 꾸리아 월례 모임

일시: 12월 28일(일) 교종미사 후  
장소: 컨퍼런스룸

### ② 성령기도회 모임

일시: 1월 4일(일) 교종미사 후  
장소: 성당

### ③ 사목회 모임

일시: 1월 4일(일) 교종미사 후  
장소: 새신자 교리실

### ④ 연령회 모임

일시: 1월 18일(일) 교종미사 후  
장소: 성당

## \* 2025년도 교무금 납부 안내

2025년을 마무리하며, 올해 교무금을 아직 완납하지 않으신 신자분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어 교무금을 납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든 신자분들께서는 2026년도 교무금 카드를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 \* 도네이션 감사드립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들 선물 구입비용을 도네이션 해주신 데이비드 골프회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에릭 즈카리아, 최교식 보니파시오, 김영호 마르코, 김고즈마, 황태영, 최덕민 바오로, 김형섭 사도요한, 김남훈 율리아노, 성안나, 김장우, 문형근, 김중현 베드로, 김멜라니, 이계명 사도요한, 유승우, 김용수 다니엘, 이앱, 이기복, 이현숙 아녜스, 고남철 라파엘, 조유호 빈체시오, 김홍우 시몬, 이영애 스텔라, 박로렌 엘리자벳스, 이명노 비오, 은정기 요셉

기타공지

## \* 연령회비 납부 안내

2026년 연령회비를 접수받고 있사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현금

1월 24/25일 Church in Latin America and Black & Indian Missions을 위한 2차 현금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12월 20/21일: \$6,593 (구유예물 및 현금 미포함)				지난주 미사 참례자 수	총 290명
	주일현금	교무금	구유예물 및 현금	특별현금		
	\$3,737	\$2,640	\$9,485	\$216		

### Business Insurance Service, Inc

보험 컨설팅, 상가·집·자동차 보험  
사도요한 김형섭 / 599-9810, 592-5011

### 브라이언 오토 바디샵

자동차바디수리·보험처리/친절상담  
홍 프란치스코 / 836-5887

### 뷰티터치 (BEAUTY TOUCH)

한국 화장품 종합 백화점  
문의: 임영림 안나  
Tel: 808-271-4802

### New York Life

은퇴연금/학자금/투자/재무설계  
차 그레고리오  
808-226-3344

### Ginzawon (긴자원)

Korean B.B.Q (Waikiki)  
문의: 김태영 안토니오  
808-220-0768  
808-922-3387

### 묘지매매

묘지: Korean Memorial Garden Lot 39  
Section B Sites 1,2,3,4  
(판매) 가격 절충 가능  
문의: 심소영 / 808-798-5100

## ※ 미사: 미사 해설

### 시작 예식(3) 교우들과의 인사에 대해서

미사 시작 예식 : 입당(입당성가/제대 인사) – 성호경 – 인사 – 참회  
– 자비송 – 대영광송 – 본기도

네 번째, 인사입니다. 성호경 후에 사제는 신자들과 함께 인사를 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에서는 시작 예식 중 인사 방식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2. 이어서 사제는 팔을 벌리며 교우들에게 인사한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2코린 13,13)

▣ 하느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리시는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갈라 1,3)

▣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2테살 3,16)

– 주교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대신에 첫인사로 이렇게 말한다.

▣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알아둡시다

3. 사제나 부제 또는 다른 봉사자는 그날 미사의 뜻을 신자들에게 짤막하게 풀이할 수 있다. 미사 안에서의 이러한 인사는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축복을 빌어주는 성사적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신자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심을 선포함과 동시에 신자들의 응답으로 함께 모인 교회의 신비를 완성시키도록 인도합니다. 인사를 통해 미사에 함께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느님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며, 나아가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교회가 일치되어 이 거룩한 만찬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제가 인사할 때, 신자들은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라고 응답함으로써, 삼위일체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주님께서 불러주신 초대를 받아들이게 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 지침 50항 참조).

사제는 세 가지 양식 중에 하나를 골라 인사할 수 있습니다. 세 가지 양식은 모두 바오로 서간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그 인용된 성경 구절은 각 인사말 뒤에 표기해 두었습니다. <로마 미사 경본> 2018년 새 한국어판에 의하면, 기존에 “또한 사제와 함께”라는 응답에서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라틴어 원문(Et cum spíritu[영] tuo)을 그대로 번역 함으로써, “또한 사제와 함께”에서 “영과 함께”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 ※ 예수, 마리아, 요셉 성가정 축일 강론 요약본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으로 이루어진 성가정 축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교회는 이 축일을 통해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을 제시하기보다는, 하느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삶 안으로 들어오셨는지를 묵상하도록 초대합니다. 성가정은 완벽한 가정이 아니었습니다. 불안했고, 위협을 받았으며, 앞날이 보이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느님께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훌로 오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의 자유로운 동의를 기다리셨고, 요셉의 침묵 속 순종을 통해 한 가정 안에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는 하느님께서 가정을 통하여 일하시고, 가정을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단순한 생활 공동체가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제1독서 집회서는 부모 공경에 대해 말합니다. 부모 공경은 단순한 예절이나 도덕 규범이 아니라, 하느님께 대한 신앙의 표현입니다. 부모는 완전하지 않지만, 하느님께서 생명을 전해 주신 통로입니다. 따라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들의 모든 행동을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를 이 생명 안으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신앙의 선택입니다. 집회서는 부모가 노쇠해질 때에도 인내하며 존중하라고 권고하며, 그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가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그는 자비와 겸손, 온유와 인내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이는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 매일 새롭게 선택해야 할 태도임을 뜻합니다. 가정은 갈등이 없는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화 안에서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자리입니다.

복음에서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합니다. 그는 묻지 않고 계산하지 않으며, 하느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성가정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안정된 가정이 아니었지만, 하느님과 함께했기에 거룩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가정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가정 축일은 우리에게 완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하느님을 가정 안으로 초대하라고 권합니다. 교회가 가정을 “작은 교회”라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용서, 인내를 배우는 첫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성가정은 완벽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오늘 이 미사 안에서 우리 각자의 가정과 마음에 품은 모든 가족을 주님께 봉헌하며, 예수님과 마리아와 요셉의 전구로 우리 가정 안에도 하느님의 평화와 사랑이 머물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권지훈 베드로 신부

<b>ARBOR Financial Group NML# 236669</b> 심소영: 주택융자담당 Cel:(808)798-5100 Email:sharis@arborfg.com	<b>최 니콜 부동산</b> Locations,LLC Cell 225-5566 <a href="http://www.ChiHawaii.com">www.ChiHawaii.com</a> <a href="mailto:nicole.choi@locationshawaii.com">nicole.choi@locationshawaii.com</a>	<b>메디케어 보험</b> (65세 이상 및 장애인) 한국어, 영어 가능(심 크리스티나) Shari Shim / 798-5100
<b>광고 문의</b> 사무실 808-422-1010	<b>A'ALA Meat &amp; Seafood Inc</b> 문의전화 808-452-8473 서삼렬 사무엘 <a href="mailto:samseo@aalameatandseafood.com">samseo@aalameatandseafood.com</a>	<b>보나 죄 부동산</b>  문의 전화 808-636-5217 <a href="mailto:bona.choi@cbpacific.com">bona.choi@cbpacific.com</a> Coldwell Banker P.P.